

지역 매 아리

김제시, 청년농업인 신청 대상자 접수 30일까지 농업정보시스템 신청

김제시농업기술센터(소장 서상철)는 청년농업인들이 영농 초기 안정적인 정착을 지원하는 '청년농업인 영농정착 지원사업' 대상자를 선발하기 위해 1월 2일부터 1월 30일까지 신청 대상자 접수를 진행하고 있다.

2018년도 전국에서 가장 많은 청년농업인 33명을 선정해 영농정착금을 지원 중에 있으며, 청년일자리 대책의 일환으로 2019년도 신규 청년농업인을 선정할 계획이다.

지원대상자는 만18세 이상 만40세 미만의 독립경영 3년 이하의 농업인으로, 대상자로 선발되면 월 최대 100만 원씩 최장 3년 간 자금을 지원된다.

다만 농지나 농기계 구입 등 자산을 취득하기 위한 목적이나 유흥업소 이용 등으로는 지원금을 사용할 수 없다.

또 청년창업형 후계농업경영인으로 선정된 대상자에게는 성공적인 농업경영인으로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최대 3억원의 용자(금리 2%, 3년 거치 7년 상환) 지원, 각종 영농시설과 교육을 통해 지역 농업의 경쟁, 축산, 시설채소 등 영농 현장에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도록 다양한 지원책 마련에도 만전을 기하고 있다. 사업신청을 희망하는 청년 농업인은 농업정보시스템(www.agrix.go.kr)을 통해 온라인으로 1월 30일까지 신청하면 되며, 센터는 신청자를 대상으로 서면과 면접평가를 거쳐 오는 3월 중으로 지원 대상자를 확정할 예정이다

/김제=곽노태 기자

성덕면 농업경영인회

연시총회 및 회장 이취임식 개최

김제시 성덕면 농업경영인회는 22일 성덕면 복지회관 2층 회의실에서 회장단이 ·취임식 및 연시총회를 개최했다. 이날 회장으로 취임한 노홍래 농업경영인회장은 그간 수고한 김현주 회장을 포함한 임원진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여러 가지로 어려운 시기에 성덕면농업경영인회를 이끌게 돼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면서 "앞으로 임기동안 회원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바탕으로 농업경영인회의 위상을 정립하고 지역발전의 토대가 되는 단체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신형순 성덕면장은 "김제는 도농복합도시로 농업이 살아야 김제가 산다"고 강조하고 어려운 현실 속에서도 농업농촌을 지키면서 농업경쟁력 제고와 회원간 화합을 위해 노력하는 농업경영인들의 노고를 치하하며 "농업의 미래를 밝게 만들어 가는데 중요한 역할을 해줄 것"을 당부했다. /김제=곽노태 기자



완주군 Social Goods가 새로운 사회적 일자리 창출의 대안으로 전국적인 인정을 받았다.

행정안전부 주관 제15회 대한민국 지방자치경영대전

완주군 장관상 수상

'완주형 사회적경제 소셜굿즈 2025 플랜' 사회적경제 가능성 인정

완주군의 신성장동력인 소셜굿즈(Social Goods)가 새로운 사회적 일자리 창출의 대안으로 전국적인 인정을 받았다.

완주군은 행정안전부가 주관한 '제15회 대한민국 지방자치경영대전'에서 '완주형 사회적경제 소셜굿즈 2025 플랜'이 행안부장관상을 수상하게 됐다

이런 지방자치 경영대전에는 전국 100여개 지자체가 참가했으며, 완주군은 일자리 분야에서 수상을 거머쥐었다.

특히, 완주군의 이번 수상은 정부가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회적경제와 맞닿아 있는 것으로 완주군의

소셜굿즈가 사회적경제 선도지역으로 우뚝 서는 계기를 마련했다.

완주군은 지난 2017년 소셜굿즈 2025 플랜을 발표하고, 양질의 사회적 일자리 창출·사회서비스 제공을 통해 사회적경제 조직을 육성하고 지역 자립과 순환경제를 추진하고 있다.

소셜굿즈는 오는 2025년까지 자립형 조직 300개를 육성하고 5000개의 일자리 창출, 군민 30%의 사회적경제 조직 참여를 목표로 두고 있다.

현재 완주군은 군 차원의 현장실행 조직인 사회적협동조합 완주사회적경제네트워크를 출범시키고, 맞춤형 컨설팅 및 처방을 통해 예비 협동조합의 전문성 강화와 자립화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또한, 완주군의 대표 협동조합인 완주주요컬푸드 협동조합에게 군 구내식당 위탁운영을 맡겨 경쟁보다는 협동과 연대에 기반을 둔 사회적경제 조직이 자립할 수 있도록 마중물 역할 수행을 통해 사회적가치 실현에 물꼬를 트고 있다.

박성일 완주군수는 "이번 수상은 완주소셜굿즈가 새로운 사회적경제의 가능성을 인정받은 것이다"며 "향후 조직개편을 통해 소셜굿즈 전담부서를 설치, 소셜굿즈 활성화에 집중할 예정인 만큼 완주 소셜굿즈의 성장에 기대해달라"고 말했다.

/완주=이종복 기자

전북은행, 김제시에 이웃사랑 선물꾸러미 100세트 전달

전북은행은 민족의 대명절 설날을 맞아 22일 관내 어려운 이웃들이 따뜻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이웃사랑 선물꾸러미 전달식을 가졌다.

이날 행사에는 전북은행 이성란 부행장, 이영태 금융센터장, 고찬배 김제지점장이 직접 참석하여 김, 당면, 식용유, 부침가루, 설탕, 캔디, 차약, 세제, 라면, 간장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총 10종의 생필품이 가득 담긴 선물꾸러미를 직접 포장하여 관내 100세대의 소외된 이웃들이 따뜻한 설 명절을 지낼 수 있도록 전달했다.

"이웃사랑 선물꾸러미"는 19개 읍면동장의 추천으로 읍면동 맞춤형 담당자들이 직접 대상자의 가정에 방문하



여 전달했다. 전북은행 관계자는 도움의 손길을 필요로 하는 소외계층 이웃들이 선물꾸러미를 통해 조금이나마 행복한 명절을 보내길 바라며, 앞

으로 지속적인 사회공헌 활동을 통해 누구에게나 따뜻한 금융을 실현하는데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제=곽노태 기자

김제시, 시민안전보험 가입

시민 누구나 최대 1000만원 보상... 올해 10월 10일까지, 매년 갱신

김제시는 최근 국내에서 발생한 여름철 집중 호우와 태풍 피해, 밀양 세종병원 화재 등과 같은 재난,재해의 발생으로 시민 보호를 위한 제도적 장치의 필요성이 대두되어 '김제시 시민 안전보험'을 가입했다.

'김제시 시민 안전보험'은 김제시가 직접 보험사와 계약한 뒤 비용을 일괄 납부해 각종 재난,재해사고, 화재사고, 교통사고, 강도사건 등 사망 또는 휴유 장애를 입은 시민에게 보험금을 최대 1000만원까지 보상하는 제도이다.

가입 대상은 김제시에 주민등록을

둔 모든 시민(외국인 포함)이며 별도의 가입 절차 없이 주민등록상 주소지만 김제에 두면 자동적으로 가입되며 보장기간은 2018년 10월 11일부터 2019년 10월 10일까지이고 매년 갱신된다.

박준배 김제시장은 안전 없이는 "아이 낳아 키우기 좋은 도시도, 시골 낯부해 각종 재난,재해사고, 화재사고, 교통사고, 강도사건 등 사망 또는 휴유 장애를 입은 시민에게 보험금을 최대 1000만원까지 보상하는 제도이다."

/김제=곽노태 기자

한국 구세군-롯데장학재단, 마음온도 37도 캠페인

완주군, 난방비 지원 사업 선정

관내 아동 9명에게 200만원 상당 난방비 지원

완주군이 한국 구세군과 롯데장학재단이 함께 하는 '마음온도 37도 캠페인 난방비 지원 사업'에 선정돼 관내 아동들에게 난방비를 지원할 수 있게 됐다.

22일 완주군에 따르면 마음온도 37도 캠페인 난방비 지원 사업은 한국 구세군과 롯데장학재단이 협력해 소외계층 어린이들의 따뜻한 겨울나기를 돕기 위한 나눔 운동이다.

이번 지원사업 선정으로 완주군은 추위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아동 9명에게 200만원 상당의 난방비를 지원받았다.

지원을 받은 정 모 가정은 "난방비 부족으로 추운 겨울을 보내야 하는 아이들이 걱정되었는데 난방비를 지원받게 돼 따뜻한 겨

울을 보낼 수 있을 것 같다"며 "관심을 갖고 애정을 보내 준 완주군 드림스타트와 한국 구세군, 롯데장학재단에 감사하다"고 말했다.

정재조 교육아동복지과장은 "이번 난방비 지원이 추위에 떨고 있는 아동 가정에 큰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한국 구세군에서 진행하는 사업에 지속적으로 지원해 많은 가정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한국 구세군은 마음온도 37도 캠페인 난방비지원 사업 외에도 청소년의 멘토 KB!와 함께 하는 공부방 만들기, 소년소녀가장 장학금 지원 사업 등 다양한 복지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완주=이종복 기자

완주군, 여성농업인 지원 확대... 3월 29일까지 신청

완주군이 여성농업인들의 지원을 확대했다. 완주군은 복지 향상 및 문화활동에 도움을 주기 위해 시행하고 있는 '2019년 여성농업인 생생카드' 신청을 3월 29일까지 받고 있다고 22일 밝혔다. 올해 완주군은 고품격과 쾌가는 농촌현실을 감안해 2019년 생생카드 연령을 75세까지 확대하고, 지원금액도 12만원에서 15만원으로 늘렸다. 신청 대상자는 실제 영농에 종사하고 농어촌 지역에 거주하는 만 25

세~만 75세 여성농업인, 만 20세~만 24세 기혼 여성농업인이다.

신청 희망자는 거주지 읍면사무소에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대상자로 선정되면, 농협은행을 통해 카드를 발급받아 1인당 연간 자부담 2만원을 포함해 15만원 한도 내에서 스포츠용품, 레저용품, 수영장, 사우나, 미용실, 서점, 화원, 영화관, 화장품점 등 관내 1400여개 가맹점에서 연말까지 사용이 가능하다. /완주=이종복 기자

지구를 시원하게 식혀주는 에너지 절약 실천 방법

1. 사용하지 않는 전기제품은 플러그에서 뽑기
2. 전기세가 많이 나오는 제품 아껴쓰기
3. 겨울철 실내 온도를 20도로 유지하고 내복 입기
4. 전기 사용량이 많은 시간대에는 전기 사용량을 줄이기

▶ 전주매일 에너지캠페인